

탈당파들 결국 한배 타나

이준석·이낙연, 양향자 출판기념회서 만남... "새 정치" 역설 축박한 총선 일정·세불리기 작업·정치 배경 등 연대까지 먼 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회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한 자리에서 만나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날 열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전직 대표인 이 위원장은 이미 제3지대로 이동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전 대표는 제3지대로 나올 예정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져 더 주목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탈당해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빅텐트' 실현 가능성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내외를 기록하는 중도

층의 지지율을 한 데 묶을 수 있다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이다.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연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두 사람도 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혁신당 당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했고,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 대표나 이 위원장 등과 협력할 생각이 있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손을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자가 세 불리기 작업부터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총선 시즌에는 1월 20일경부터 공천이 시작된다"며 "(20일까지 열을 남짓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세력이 창당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7일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과의 '낙석연대' 가능성을 묻자 "그 조어(낙석, 落石)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 모두 '빅텐트' 구상을 담지는 않아서 양 대표나 새로운 선택 급태섭 대표 등 제3지대를 구상 중인 세력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준석·이낙연 신당의 연대 가능성을 평가절하했다.

이 위원장은 반운(반운석열), 이 전 대표는 비명(비이재명) 깃발을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 공동체를 실현할 매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준석·이낙연 연대) 반운 세력의 합종연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표결 불참... 특조위, 최대 1년 6개월 활동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

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 금지... 지자체, 위반 시 철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을 최대 2개씩만 달게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 강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당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와 구역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새해 첫 국무회의의 주재... 강원도 동계 청소년올림픽 만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

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외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이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연달아 포 사격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브리핑

박균택 "광주 지하철 2호선 4구간 신설하겠다"

광산갑 예비후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한 박균택 예비후보는 9일 "총선 정책 공약 1호로 '광주 지하철 2호선 4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광산구, 호남대·광주여대의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북구 북부권 2호선 이용 주민 또한 KTX 광주송정역 이용 상무역 환승으로 불편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가 발표한 광주 지하철 2호선 4구간 신설 사업 규모는 노선 거리 약 12km로 사업비는 약 6000억원이 추산된다. 구간은 송정역~선운2지구·황룡천수공원~호남대·선운지구·보문고~어등산관광단지~소촌동~광주여대~우산동·월곡1·2동~흑석사거리~하남산단~수완동까지이다.



박 예비후보는 공약 이행 방법으로 202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대신 공약 반영을 위해 광산구 주민, 주변 대학교·고등학교 동문 서명 운동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 재정 부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으로 현 국비와 시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국비 6:시비 4 → 국비 7:시비 3)하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참여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광산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1호 과제는 '서민의 발'인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하철 2호선 4구간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대선 공약 반영,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